

작업치료사로서의 갈등 경험에 관한 연구 :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 적용

한상우*, 함보현**, 홍덕기***, 최성열****, 전병진*****

*광주여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 작업치료실

****건양대학교병원 작업치료실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작업치료사로서의 보편적으로 경험한 갈등의 의미를 밝히고, 현상에 대한 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임상치료사들을 위한 직무발전방안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체험을 진솔하게 구술할 수 있는 임상작업치료사 8명으로 선정하였다. 대화 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월 까지였으며, 시간은 근무 후 약 30~40분씩, 참여자마다 3회 이상 실시하였다.

결과 : 작업치료사로서의 갈등 체험은 작업치료의 정체성 혼란과 인식 부족을 느끼고, 열악한 근무 환경과 사회생활에서 오는 심적 갈등, 급여 문제로 걱정하지만, 치료에 대한 고민과 노력들로 미래를 희망하는 체험 과정이었다. 그러나 외적, 내적 갈등으로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학문에 대한 자기 개발과 성장을 경험하면서 긍정적인 미래를 향해 발전하며 극복해나가고 있었다.

결론 : 치료사들이 내적·외적인 갈등에서 벗어나, 작업치료의 정체성 확립과 치료에 대한 만족 및 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물리적·사회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갈등 경험, 인간되어감, 작업치료사

I. 서론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증진, 장기요양, 가

정간호, 재활분야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문재와 최만규, 2011). 보건의료 전문직의 하나인 작업치료사는 장애인의 의료재활 및 사회재활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정민예와 차유진, 2009; 한대성, 정민예, 유은영과 정보인, 2008).

작업치료사는 환자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참여를 지지하기 위해 작업치료 서비스를 통해 인간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시키고, 질병, 손상, 장애, 활동 및 참여의 제한을 감소시킴으로써 삶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AOTA, 2002; AOTA, 2008). 하지만 의료분야 종사자로서 작업치료사는 치료에 대한 전문 지식과 고도의 치료 기술 요구, 의료부서 간의 의사소통 및 상호 협조, 전문가로서의 가치관과 전문적 인격, 인간의 생명을 업무 대상으로 하는 육체적·정신적 긴장과 환자와의 의사소통 등으로 인하여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에 비해 직업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종욱, 서영준과 박하영, 1996; 이덕례, 1996; 정진주, 2002).

이렇듯 병원 조직과 같이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이 상호 협력해서 과업을 수행하는 조직에서는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지나친 갈등으로 인해 직종간의 협력관계가 불안정 하다면 환자진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Gerardi, 2004). 복잡한 직무와 다양한 집단들로 구성된 조직에서는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집단, 직종간의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이문재와 최만규, 2011). 갈등은 개인이나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바라는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갈등주체들 간에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류부열, 2006). 또한 조직 상호작용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로써 대체로 개인이나 집단에 있어서 목표의 비 양립성, 한정된 자원의 획득을 위한 경쟁, 상호 의존성, 지각의 차이 등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류부열, 2006; 정광원, 1995). 과거에는 갈등이 조직성과 달성에 부정적인 효과만이 강조되어 갈등 억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최근에는 일정한 수준의 갈등은 조직구성원들에게 긴장감과 생동감을 불어넣어 목표달성에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문재와 최만규, 2011). 그러나 갈등이 조직성과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김의용, 2010).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 작업치료사에 대한 직무와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직무만족도(권정아, 노재훈, 장세진, 원종욱과 심상효, 2007; 채정

훈, 2005)와 직무로 인한 근골격계 문제(강미정, 정원미와 구정완, 2007; 박주형, 2010),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김진주, 노재훈과 원종욱, 2010; 박은영과 김은주, 2008; 양영애, 허진강, 노영만과 이규창, 2007; 정주희, 2011; 최유임, 김은주와 박은영, 2011; 한대성 등, 2008)가 진행되었다. 위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작업치료사는 조직체계에서의 갈등과 제한,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에 노출 그리고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만족 등을 경험하는 직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체계적인 관리 등은 작업치료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권정아 등, 2007; 박은영과 김은주, 2008; 정주희, 2011; 한대성 등, 2008).

이처럼 작업치료 영역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신체적, 환경적 요인을 강조한 양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심리적 양상의 심도 있는 심층연구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로서의 직무갈등과 같은 정신적, 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한대성 등,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Parse의 인간되어감(human becoming)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작업치료사로서의 갈등 경험에 대한 본질의 의미를 밝히고 이해하고자 하였다. 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은 인간의 보편적으로 경험한 현상의 의미를 밝히고 인간 경험 현상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켜 그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는 인간과학의 방법론 중 하나이다(Parse, 1996). 그렇기 때문에 갈등 경험을 밝히고 이해하는데 적절한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한 연구 질문은 “작업치료사로서 갈등은 무엇입니까?”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체험을 진솔하게 구술할 수 있는 작업치료사 8명을 선정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서면으로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참여자 1과 2는 31세 여성과 28세 남성으로, 복지관과 사설 치료실에서 소아 작업치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임상경력은 각 8년, 6년이다. 참여자 3과 4는 29세 남성과 24세 여성으로, 대학병원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작업치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임상경력은 각 3년, 8개월이다. 참여자 5, 6, 7, 8은 25~32세 남성(1명)과 여성(3명)으로, 재활병원에서 2~7년 동안 성인 작업치료를 수행하고 있다.

2. 자료 수집

연구를 위한 질문은 “작업치료사로서 갈등은 무엇입니까?” 라는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대화 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월 까지였으며, 시간은 근무 후 약 30~40분 쯤, 참여자마다 3회 이상 실시하였다. 대화는 조용한 치료실 및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대화 내용은 사전 동의를 통해 녹음되었으며, 녹취된 내용은 연구자가 반복 청취하면서 한글 프로그램으로 직접 전사하였다.

3.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Parse's human becoming method)

본 연구에서는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Parse의 연구 방법론의 이론적 기초는 존재론적인 철학의 기본과 일치된다(Parse, 1981; 1987; 1990; 1992; 1995; 1997a; 1997b). 다른 질적 방법론과는 다소 다른 이 연구방법은 실제로 참여자들이 어떤 삶을 영위하는지에 대하여 기술하는 체험의 본질을 인간되어감 이론에 따라 해석되는 현상학적-해석학적 방법이다. Parse 방법을 적용한 연구의 대상은 희망, 기쁨-슬픔, 제한받는 느낌-자유로운 느낌, 만족, 애통, 고통 등과 같은 건강과 관련된 보편적인 체험이다. 연구자는 대상자로부터 얻은 체험의 의미를 어휘, 상징, 음악, 시, 사진, 그림 혹은 활동을 통하여 기술할 수 있다.

1) 너와 나의 관계형성

면담의 과정이 아니라 연구자와 참여자가 진정으로 함께 하면서 경험에 대해 비구조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으로, 참여자가 현상에 대하여 서술한 내용에 초점을 두고, 모든 내용을 녹음하거나 가능한 경우, 녹화하기도 한다. 연구자는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어떻

게 회상하는지, 현재의 경험은 어떠한지, 또 그 경험으로 인한 미래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그 내용이 나타나도록 대화를 한다(고명숙, 이정숙과 이옥자, 2002).

2) 추출-종합

참여자의 언어로부터 과학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체험의 구조형태에 대한 개념적인 본질을 선별하는 것이다. 과정은 참여자가 묘사한 체험의 의미를 이끌어내도록 집중적으로 오디오나 비디오로 녹음, 녹화된 대화를 기록하면서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확인된 구조(과거, 현재의 순간,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모든 것을 동시에 재 체험하는 역설적인 삶)가 연구문제에 대한 대답이 된다. 이 과정은 아래와 같다.

- (1) 참여자의 언어를 적은 기록에서 그 경험의 주요 내용을 추출한다.
- (2) 추출된 주요내용을 연구자의 언어로 종합한다.
- (3) 각 참여자의 서술에서 명제를 만든다.
- (4) 만들어진 명제에서 핵심개념을 다시 뽑아낸다. 핵심개념은 명제의 중심의미를 나타내는 관념이다.
- (5) 추출된 핵심 개념을 생생한 경험의 구조로 종합한다(고명숙 등, 2002).

본 연구에서는 Parse의 분석과정에 따라 연구자는 필사본을 읽으면서 대화내용의 핵심 구술을 추출하고, 참여자의 핵심 구술 추출을 연구자의 언어로 종합하였다. 종합한 연구자 언어를 바탕으로 언어-예술을 만들고, 추출된 구조들로부터 작업치료사의 갈등에 관한 핵심 개념들을 구조적으로 통합하였다.

3) 발견적 해석

체험의 구조를 이론과 연결시키는 작업이며, 논리적이고 추상성이 높은 창조적인 마지막 과정이다. 이 과정은 구조적 통합과 개념적 해석과정을 거친다. 구조적 통합과정에서는 형성된 구조를 인간되어감 이론의 구조로 통합하고, 개념적 해석과정에서는 인간되어감 이론의 개념을 사용하여 체험의 구조를 구체화 한다. 체험의 구조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합한 역설적인 삶이다. 구조를 이론에 연결시키는 것은 경험적인 것을 이론적인 것에 연결하는 것이다(고명숙 등, 2002).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참여자 여덟 명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통합하고 개념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Parse의 인간되어감 방법을 적용하였다(Parse, 2006).

4)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하여 Maxwell(1996)이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기술적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자의 언어, 어투, 감정을 녹취를 통해 가능한 정확하게 담아냈으며, 해석적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인간되어감 연구 전문가인 간호학과 교수 1명, 작업치료학과 교수 3명, 물리치료학과 교수 1명, 대학원생 9명의 토의를 통해 여덟 명 참여자의 녹취 전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론적 타당도를 위해서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와 참여자간의 공동 확인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임상에서 활동 중인 작업치료사를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 복지관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작업치료의 인식 부족을 느낌.
- 지역사회 작업치료의 틀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현실의 제한과 역량 부족을 느낌.
- 갈등을 통해 내적 성장을 경험하면서 미래의 작업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바람을 표현 함.

(3) 참여자 1의 언어-예술

참여자1의 작업치료사로서의 갈등 체험은 열악한 근무 환경, 현실의 제한, 역량 부족, 작업치료의 정체성과 인식 부족의 갈등을 경험하지만 극복 과정을 통해 내적 성장을 하고, 미래의 작업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바람을 원하는 것이다.

III. 연구 결과

1. 참여자들의 구술 및 핵심개념

분석의 첫 과정은 참여자 여덟 명의 구술을 통해 개념을 추출하는 과정이다. 우선 참여자의 언어를 적은 기록에서 그 경험의 주요내용을 추출한 후, 추출된 주요 내용을 연구자의 언어로 종합한다. 이후 언어-예술을 만들어 개념화 작업을 하였다.

1) 참여자 1의 구술추출 내용-연구자 언어로 종합한 내용

(1) 참여자 1의 구술추출

- 작업치료의 정체성에 대해 갈등을 느끼고, 작업치료를 어떻게 보여주어야 할지 한계를 느꼈다.
- 지역사회재활을 경험하고 싶어 열악한 환경의 복지관에 근무를 하였는데, 작업치료를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다.
- 지역사회재활의 작업치료 틀을 깨려고 고민하고 찾았지만 병원의 작업치료 틀을 머리 속에 그리고 있었다.
- 작업치료사의 갈등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내면을 성장시킬 수 있었고, 앞으로 작업치료를 즐기고 좋아했으면 좋겠다.

(2) 연구자 언어 종합

- 작업치료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느끼는 동시에 애정을 느끼게 됨.

2) 참여자 2의 구술추출 내용-연구자 언어로 종합한 내용

(1) 참여자 2의 구술 추출

- 치료에 대한 불 확신과 태도와 자질, 행동 습관, 지식 면에서 부족함을 고민하면서 바꾸려 노력하고 근무환경과 일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도가 높다.
- 좋은 치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바쁘고 힘든 환경의 악순환으로 회의를 느끼면서 시간을 좀 더 잘 사용하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

(2) 연구자 언어 종합

- 자신의 역량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직업에 대해 만족함.
- 힘든 환경 속에서도 좋은 치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함.

(3) 참여자 2의 언어-예술

참여자 2의 작업치료사로서의 갈등체험은 좋은 치료사가 되기 위해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역량에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3) 참여자 3의 구술추출 내용-연구자 언어로 종합한 내용

(1) 참여자 3의 구술 추출

- 선임치료사들에게 많은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았으나 점차 치료의 근거를 당당하게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새로 옮긴 병원 환경에서 물리치료사들이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 환자들에게 의미 있는 작업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 노력하지만 공간 및 시간적 제약과 많은 환자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갈등한다.

- 작업치료사의 수입이 적다고는 생각하지만 직업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며 할수록 더 애정을 가지게 된다.

(2) 연구자 언어 종합

-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 스스로 치료 근거를 마련하고 성장하는 중.
-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이 낮지만 스스로의 발전을 통해 변화를 추구함.
- 병원 환경 내의 공간과 시간 제약이 있고 환자가 많아 몸과 마음이 지쳐 환자에게 의미 있는 작업을 제공하는데 한계를 느낌.
- 수입이 적어 고민하고 있지만 작업치료의 선택에 후회 없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

(3) 참여자 3의 언어-예술

참여자 3의 작업치료사로서의 갈등 체험은 병원 내에서 작업치료의 인식부족, 공간과 시간 제약, 많은 환자 수로 인해 심신이 지쳐 의미 있는 작업을 제공하는데 한계를 느꼈지만 스스로 치료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부하고 작업치료의 선택에 후회 없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4) 참여자 4의 구술추출 내용-연구자 언어로 종합한 내용

(1) 참여자 4의 구술 추출

- 작업치료를 하면서 먹고사는 문제, 책에서 배운 것과 다른 환경, 쫓기듯 치료를 하면서 잘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게 되었다.
-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다른 경험의 제한이 생겨 딜레마가 생겼다.
- 작업치료 포기를 생각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발전되고 알려질 거라 기대하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

(2) 연구자 언어 종합

- 경제적 문제, 환경적 제한으로 인해 작업치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됨
-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타 분야 경험에 대한 아쉬움으로 딜레마를 경험함.
- 작업치료사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느꼈지만 앞으로 발전되어갈 미래를 기대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함.

(3) 참여자 4의 언어-예술

참여자 4의 작업치료사로서의 갈등 체험은 경제적 문제, 환경적 제한성, 대인관계의 어려움으로 이를 극복해가면서 노력하는 과정이다.

5) 참여자 5의 구술추출 내용-연구자 언어로 종합한 내용

(1) 참여자 5의 서술 추출

- 임금 문제로 직장을 옮기지만 동결된 임금으로 회의감을 느낌.
- 외적인 일들에 순응적으로 일하지만 작업치료를 깎아내리는 주변사람들에 의해 서운함을 느낀다.
- 후임치료사에게 작업치료 외적인 일이 아닌 작업치료를 하게 해주고, 돈과 명예가 아닌 사람을 만드는데 스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2) 연구자 언어 종합

- 동결되는 임금 문제로 좌절을 느낌.
- 직장에서의 외적인 업무에 순응하면서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부족을 느낌.
- 좋은 선임치료사, 전공 관련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임.

(3) 참여자 5의 언어-예술

참여자 5의 작업치료사로서의 갈등 체험은 동결되는 임금에 좌절을 느끼고, 외적인 업무에 순응하면서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부족을 느끼지만 좋은 선임치료사,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다.

6) 참여자 6의 구술추출 내용-연구자 언어로 종합한 내용

(1) 참여자 6의 서술 추출

- 치료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환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한계에 대해 항상 고민함.
- 치료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부담감으로 심적 고민을 느끼고 있음.

(2) 연구자 언어 종합

- 자신의 역량 부족을 느끼지만 좋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함.
- 직장 동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내적 갈등을 경험함.

(3) 참여자 6의 언어-예술

참여자 6의 임상 작업치료사로서의 갈등 체험은 직장 동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자신의 역량 부족을 느끼지만 좋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7) 참여자 7의 구술추출 내용-연구자 언어로 종합한 내용

(1) 참여자 7의 서술 추출

- 작업치료사로써 신체적으로 일을 하는데 따른 부담과 몸이 많이 상할까 걱정을 하고 있다.
- 건강보험수가대로 급여 책정이 되니 다른 직업은 인정을 받으나 고년차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고 앞으로 갈 자리가 없어 진로문제에 갈등
- 학교와 임상과 너무 다르고, 특히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매뉴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환자들의 문화가 다른 점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회의를 느낀다.
- 치료를 하지만 나를 만나서 많이 향상이 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고민이다.

(2) 연구자 언어 종합

- 작업치료사의 신체적 업무로 현재와 미래의 건강에 대해 염려가 됨.
- 작업치료사로써 적절한 대우와 처우 개선이 필요함.
-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실무에서 적용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갈등을 느낌
- 더 나은 치료에 대한 고민

(3) 참여자 7의 언어-예술

참여자 7의 작업치료사로서의 갈등 체험은 학교에서 배운 작업치료를 실무에 적용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갈등과 신체적 업무로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지만, 적절한 대우와 처우 개선을 바라며 더 나은 치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8) 참여자 8의 구술추출 내용-연구자 언어로 종합한 내용

(1) 참여자 8의 서술 추출

- 치료에 대한 확신이 없어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나누려 하지만 교육비 지원, 선생님들의 무관심, 서울에 집중된 교육으로 어려움을 느꼈다.
- 작업치료사 연봉이 적어서 회의를 느꼈다.
- 물리치료와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웠고, 작업치료를 이해하지 못해 트러블이 생겨 회의를 느꼈으나,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작업치료가 발전하기를 바란다.
- 간병사, 간호과, 의사, 환자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느끼지만,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일을 통해 적응하면서 회복하였다.

(2) 연구자 언어 종합

- 치료 역량을 위해 노력하지만 환경적 제한을 느낌.
- 급여문제로 회의를 느낌.
- 작업치료에 대한 정체성 혼란과 몰이해로 힘들지만 미래에 작업치료의 발전을 바램.
- 의료진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작업치료를 통해 적응하고 성숙하는 과정임.

(3) 참여자 8의 언어-예술

참여자 8의 작업치료사로써의 갈등 체험은 치료에 대한 환경적 제한과 작업치료의 정체성 혼란과 몰이해, 의료진과의 상호작용, 급여문제를 경험하지만 작업치료의 발전을 바라면서 적응하고 성숙하는 과정이다.

3. 핵심개념의 발견적 해석

작업치료사의 갈등 경험에 대한 체험의 발견적 해석의 결과는 첫째, 작업치료의 정체성 혼란과 인식 부족, 둘째, 급여 문제, 셋째, 미래에 대한 희망, 넷째, 열악한 환경, 다섯째, 사회생활에서 오는 심적 갈등, 여섯째, 치료에 대한 고민과 노력, 이라는 여섯 개의 핵심개념으로 추출되었다(표 1). 여섯 개의 핵심개념은 ‘작업치료의 정체성 혼란과 인식 부족을 느끼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사회생활에서 오는 심적 갈등, 급여 문제로 걱정하지만, 치료에 대한 고민과 노력들로 미래를 희망하는 과정이다.’ 라는 하나의 구조로 나타났다. 추출된 구조를 생생한 경험의 구조로 전환시키면 ‘작업치료사로써의 갈등 체험은 외적, 내적 갈등으로 불안한 현실 속에서 학문에 대한 자기 개발과 성장을 경험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는 과정이다.’로 정리되었다. 위의 발견적 해석의 결과인 여섯 개의 핵심 개념을 구조적으로 변환시켜 개념적으로 통합시키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작업치료사로써의 갈등 체험은 열악한 근무환경, 급여문제,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이다. 급여가 수가로 책정되기 때문에 높은 연차 치료사들을 병원에서 쓰지 않으려 하며, 임금이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타부서와의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로 인해 작업치료사들이 임상에서 갈등을 겪고 있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 핵심개념에 대한 발견적 해석

핵심개념	구조적 전환	개념적 통합
작업치료의 정체성 혼란과 인식 부족		가치화
급여 문제	외적 및 내적 갈등	연결-분리
미래에 대한 희망	불안한 현실	가능-제한
열악한 근무 환경	학문에 대한 자기 개발과 성장	변형성
사회생활에서 오는 심적 갈등	긍정적인 미래	강화성
치료에 대한 고민과 노력		

구조

작업치료사로서의 갈등 체험은 작업치료의 정체성 혼란과 인식 부족을 느끼고, 열악한 근무 환경과 사회생활에서 오는 심적 갈등, 급여 문제로 걱정하지만, 치료에 대한 고민과 노력들로 미래를 희망하는 체험 과정이다.

구조적 전환

작업치료사로서의 갈등 체험은 외적, 내적 갈등으로 불안한 현실 속에서 학문에 대한 자기 개발과 성장을 경험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는 과정이다.

개념적 통합

작업치료사로서의 갈등 체험은 가치화를 연결-분리, 가능-제한으로 변형시켜 강화하는 과정이다.

예술적 표현

작업치료를 하는 우리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지 부를 획득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세상의 변화를 보고, 이러한 변화가 삶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작업의 정의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하나의 함축된 표현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점이 바로 우리에게 장점일 수 있습니다. 작업치료사는 인간의 삶을 종적, 횡적으로 사려 깊게 바라보고 통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작업치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사람과 사회, 문화를 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변화가 곧 발전에 대한 기회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출처 : 정병록(2011. 10) 작업치료 협회보 50호

둘째, 작업치료사로서의 갈등 체험은 작업치료의 정체성 혼란과 자신의 역량에 관한 고민을 하면서 노력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배운 작업치료와 다른 임상환경 속에서 자신이 제대로 작업치료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으로 혼란스러워 하지만 스스로 치료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작업치료사로서의 갈등 체험은 이러한 노력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개발과 성장을 경험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보여준다. 참여자는 여러 외·내적인 갈등 속에서도 치료를 더 잘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료를 찾고, 스터디에 참여하며, 교육을 찾아다니는 등의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 사비를 들여 교육을 참여해야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미래에 좀 더 나아질 것이라 기대를 하며 작업치료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작업치료사의 갈등 체험에 대한 체험의 통합된 구조는 작업치료 협회보에 실린 칼럼의 일부 표현을 통해 강화되어진다. 단지 부를 획득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세상의 변화를 보고, 이러한 변화가 삶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전문가는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작업의 정의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하나의 함축된 표현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작업치료사는 인간의 삶을 종적, 횡적으로 사려 깊게 바라보고 통찰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작업치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사람과 사회, 문화를 보게 되었을 때에 변화가 곧 발전에 대한 기회로 다가와 더 나은 미래를 가지게 되리라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다.

IV. 고찰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로서의 갈등 체험에 대한 본질의 의미를 밝히고 이해하고자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알아보았다. 우리사회에서 작업치료사로 살아가는 대상자들의 체험적 결과를 몇 가지 영역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작업치료사들은 열악한 환경, 급여문제,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작업치료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 환경적 제약(공간과 시간)과 과중업무는 신체적 업무까지 소화해야 하는 치료사에게 치료적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한하고, 건강에 대한 우려를 끼치게 만들었다. 작업치료의 이상과 영역은 임상에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둘째, 작업치료의 정체성 혼란을 겪지만, 자신의 역량에 관한 고민을 하면서 노력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각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배운 작업치료를 실무에 적용하는데 한계를 느껴 당황스러워 했다. 작업 대신에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물리적 치료기법의 시행에 대한 회의감과 안타까움으로 작업치료의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극복 과정을 통해 내적 성장을 하고, 작업치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원하는 것으로 승화 시켰다. 셋째, 작업치료사들은 이러한 노력과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개발과 성장을 경험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Parse의 인간되어감의 세 가지 원리에 따른 설명은 다음과 같다.

Parse의 첫 번째 원리로는 인간되어감은 동시에 살아가는 우주의 많은 영역 속에서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현실을 계속적으로 구성하는 "의미화"가 있다. 각 개인에게는 상호과정, 그 실재 속에서 존재하는 무한한 영역은 되어감의 끊임없는 심포니이며, 개인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간을 초월한 순간이다(Parse, 1996).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동시에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있고(Ricoeur, 1988), 실체로서 의미가 나타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을 통하여 구체화된다(Toben, 1975). 과거에 습득하고 경험한 작업치료에 대한 가치는 현실 속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이해부족과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치료적 접근방법부터 치료의 자율성까지 작업치료의 미래에 의구심을 갖게 하였고, 이를 극

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발전을 희망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과거에 지닌 작업치료의 가치에 대해 기대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임상에 나섰지만, 현재의 제한된 외무요인들로 인해 갈등을 하고, 그 속에서 희망이라는 상상화를 통해 극복해 나아가고 있었다.

Parse의 두 번째 원리인 관계의 율동적인 패턴이란 인간-우주에서 인간되어감은 함께 되어감의 방식을 공동구성하는 운율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노출-은폐, 가능-제한, 연결-분리의 방식으로 동시에 작용하여, 역설적이면서도 율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개인의 각자 다른 경험으로 다양한 패턴이 공동으로 창조된다(고명숙 등, 2002). 임상에서 맺는 관계패턴은 크게 가능-제한과 연결-분리로 나타났다. Parse 이론에서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유로우며 상황에서 특정한 방식이 되도록 선택하지만(Sartre, 1966), 항상 가능-제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연결-분리는 타인과 사고, 사물, 상황과 함께 있으면서 동시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인간 삶의 이중적인 원리가 작용한다고 본다. Kempley(1974)도 분리는 연합의 상위의 서열이며, 분리와 합일의 과정은 "인간발달의 주요한 진의"라고 믿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이론과 임상에서의 치료적 접근차이로 자신감을 잃거나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였고, 병원의 운영 시스템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낮은 임금으로 직장인으로서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였다. 또한, 치료활동에 있어서 건물 구조 및 시설, 병원 구성원들의 환경적 제약과 인식 부족으로 잦은 협조를 구해야 하는 부담감을 가졌다. 같은 치료사더라도 직급이 낮아 교육이나 지원에 있어서도 차별이 존재하였고, 치료실 내에서도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소외감을 느꼈다. 하지만 때로는 순응하며 자기발전에 시간을 투자하거나, 보다 나은 입지를 위해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반복하여 경험을 토대로 발전해 나가려는 의지를 키우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능성을 가지고 공동 초월하는 원리는 익숙한 것과 생소한 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창조하는데 있어서 추진-저항하면서 의도된 꿈과 희망을 초월하여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Parse, 1992). 이는 인간이 아직 되어 지지 않은 것을 열망하며 그것을 초월하려고 노력하고(Merleau-Ponty, 1974), 경험의 다양

한 영역과 함께 동시에 살아가는 것이다(Marcel, 1978). 참여자들은 작업치료에 대한 가치관과 임상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갈등들을 겪고 있지만, 작업치료의 발전을 희망하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작업치료사들의 직무에 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Wressle과 Oeberg(1998)는 작업치료사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 요인을 자원과 요구, 전문적 가치, 보상, 환자 및 동료와의 관계 등의 요인으로 설명하였으며, 스트레스와 신체적 증상(통증) 및 심리적 증상들과의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작업치료사로서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 알아본 연구에서 ‘업무량 과중’, ‘전문직으로서의 역할 갈등’,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대인관계상의 문제’, ‘의사와의 관계 및 업무상 갈등’, ‘치료의 한계에 대한 심적 부담’, ‘부적절한 대우’, ‘부적절한 보상’,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으로 총 9개의 요인들이 구분되어있었다(한대성 등, 2008).

직무로 인한 갈등은 개인이 상황이나 환경을 조절할 수 없을 때 발생하며, 일의 요구도가 높고 통제력이 낮을 때 발생한다(Karasek, 1987). 적절한 스트레스는 직무에 도움을 주지만, 직업에 대한 기대와 현실과의 갈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인간을 소진 상태에 빠지게 한다(Freudenberger, 1977).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업치료사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치료적 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권정아 등, 2007).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기관과 연령의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직무 관련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V. 결 론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임상에서의 갈등 경험 체험의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고,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연구 질문은 “작업치료사로서 갈등은 무엇입니까?”이었다. 2012년 1월부터 2월까지 대화 내용을 녹취하여, 서술문을 수행하였다. 작업치료사들의 갈등 구

조는 작업치료의 정체성 혼란과 인식 부족을 느끼고, 열악한 근무 환경과 사회생활에서 오는 심적 갈등·급여 문제로 걱정하지만, 치료에 대한 고민과 노력들로 미래를 희망하는 체험 과정이었다. 이것은 내적·외적 갈등으로 불안한 현실 속에서 학문에 대한 자기 개발과 성장을 경험하고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는 것으로 구조적 전환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갈등 체험은 가치화를 연결-분리, 가능-제한으로 변형시켜 강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개념적 통합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치료사의 갈등 체험은 작업치료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전문분야를 발전시켜 책임 있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제안을 하면, 치료사들이 작업치료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내적·외적인 갈등에서 벗어나 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물리적 사회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미정, 정원미, 구정완. (2007). 근골격계 자각증상과 관련요인.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5(2), 117-128.
- 고명숙, 이정숙, 이옥자. (2002). **인간되어감 이론(개정판)**. 서울: 현문사.
- 고종욱, 서영준, 박하영. (1996).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이 병원종사자들의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회지**, 9(2), 295-308.
- 권정아, 노재훈, 장세진, 원종욱, 심상호. (2007). 작업치료사의 직무 만족도 관련요인.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5(1), 117-130.
- 김의용. (2010). **리더십 유형이 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내재적 동기부여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진주, 노재훈, 원종욱. (2010).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 **대한산업의학회지**, 22(3), 173-182.
- 류부열. (2006). **대학조직 내 구성원 간의 갈등구조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박은영, 김은주. (2008). 작업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10), 208-216.
- 박주형. (2010). **작업치료사의 근골격계 통증과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해.

- 양영애, 허진강, 노영만, 이규창. (2007).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인간공학회지**, 26(3), 1-9.
- 이덕례. (1996). 치과기공사들의 스트레스와 소진경험에 관한 연구. **등남보건대학논문집**, 13, 399-412.
- 이문재, 최만규. (2011). 의사와의 관계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갈등수준 비교.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2(11), 4844-4851.
- 정광원. (1995). 조직갈등과 관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5, 57-106.
- 정민예, 차유진. (2009). 국내 작업치료 인력 현황 및 수급분석.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7(4), 113-127.
- 정주희. (2011). **작업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의로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주.
- 정진주. (2002). 병원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 현황과 요인분석. **한국환경보건학회지**, 8(3), 72-76.
- 채정훈. (2005). **국내 작업치료사의 직무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구.
- 최유임, 김은주, 박은영. (2011).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의 타당도: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7), 225-233.
- 한대성, 정민예, 유은영, 정보인. (2008). 병원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 요인.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6(1), 109-118.
-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2002).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 Domain and Proces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6(6), 609-639.
-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2008).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 Domain and Process(2nd ed.).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2(6), 625-683.
- Freudenberger, H. (1977). Burn-out: The organizational menace. *Training and Development Journal*, 31, 26-27.
- Gerardi, D. (2004). Using mediation techniques to manage conflict and create healthy work environments. *AACN Clinical Issues*, 15(2), 182-195.
- Karasek, R. (1987). Krav/kontroll-dodellen (Red). In H. Leymann & L. Svensson(Eds.), *Forskning for framtidens arbetsliv*. Stockholm: Bokforlaget Prisma.
- Kempler, W. (1974). *Principles of gestalt family therapy*. Costa Mesa, CA: Kempler Institute.
- Marcel, G. (1978). *Mystery of being: Reflection and mystery(Vol. 1)*. South Bend, IN: Gateway Editions.
- Maxwell, J. A. (1996). *Qualitative research design: An interactive approach*. London: Sage Publication.
- Merleau-Ponty, M. (1974). *Phenomenology of perception(C. Smith, Trans.)*. NY: Humanities Press.
- Parse, R. R. (1981). *Man-living-Health: A theory of nursing*. New York: John Wiley.
- Parse, R. R. (1987). *Nursing science: Major paradigm, theories, and critiques*. Philadelphia: W. B. Saunders.
- Parse, R. R. (1990). Parse's research methodology with an illustration of the lived experience of hope. *Nursing Science Quarterly*, 3, 9-17.
- Parse, R. R. (1992). Human becoming: Pars's theory of nursing. *Nursing Science Quarterly*, 5, 35-42.
- Parse, R. R. (1995). *Illuminations: the human becoming theory in practice and research*. New York: National League for Nursing Press.
- Parse, R. R. (1996). Human Becoming theory: Challenges in Practice and Research. *Nursing Science Quarterly*, 9(3), 55-60.
- Parse, R. R. (1997a). The human becoming theory: The was, is, and will be. *Nursing Science Quarterly*, 10, 32-38.
- Parse, R. R. (1997b). Joy-sorrow: A study using the parse research method. *Nursing Science Quarterly*, 10, 80-87.
- Parse, R. R. (2006). Feeling Respected: A Parse Method Study. *Nursing Science Quarterly*, 19(1), 51-56.
- Ricoeur, P. (1988). *Time and narrative, Vol. 3(K. Blamey & D. Pellauer, Trans.)*.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rtre, J. P. (1966). *Being and nothingness*. New York: Washington Square.
- Toben, B. (1975). *Space-time and beyond*. New York: E. P. Dutton.
- Wressle, E., & Oeberg. B. (1998). Work-Related Stress among Occupational Therapist in Sweden. *The British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1, 467-472.

Abstract

Conflict Experience as an Occupational Therapist : Parse's Theory of Human Becoming

Han, Sang-Woo*, M.P.H., O.T., Ham, Bo-Hyun**, M.P.H., O.T.,
Hong, Duk-Ki***, M.P.H., O.T., Choi, Sung-Yul****, B.H.Sc., O.T.,
Jeon, Byoung-Jin****,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Gwang Ju Women's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onyang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Wonkwang University Oriental medical Hospital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onyang University Hospital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 : Commonly experienced as an occupational therapist to reveal the meaning of conflict, development by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quality of official development plan for therapists were willing to contribute.

Method : In this study using Parse's human becoming method to collect and analyze data. Participants to understand purpose of the study's researchers and that can be spoken honestly their experience through dialogue were selected eight people as a clinical occupational therapist. Conversation period January-February 2012 was, at the time of about 30-40 minutes, Every conversation is more than three times for each participant were conducted.

Result : Experience of occupational therapists, occupational therapy as a conflict of identity confusion and lack of awareness, feeling that comes from a poor working environment and social life, mental conflict, payroll issues to worry about, but concerns about the treatment of the future with hope and effort in the process was an experience. However, external, internal conflicts despite the uneasy reality academic experience for self-development and growth, and the development towards a positive future was out over it.

Conclusion : Away from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flicts therapists, occupational therapy and establish the identity of satisfaction and quality of care for the treatment to improve their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 continuous improvement is necessary.

Key Words : Conflict experience, Human Becoming, Occupational therapist